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48回平昌郡議會

開會式

平昌郡議會事務課

1997年 2月 21日(金) 13時37分 開式

第48回平昌郡議會(臨時會)開會式順

- 1. 開 式
- 1. 國旗에對한敬禮
- 1. 愛國歌齊唱
-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 1. 開會辭
- 1. 閉 式

(司會: 議事係長 全完鐸)

(13時37分 開式)

○ 議事係長 全完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목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상훈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욱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새해를 맞아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계획의 시행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심은 물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여망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법 파동, 한보철강 부도,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망명, 이한영 귀순자 피격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하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를 걱정하는 군민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의 북한실정은 심각한 식량 부족과 경제난으로 체제붕괴의 위기에 처해있어 언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매우 불투명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때 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책무를 다함은 물론 좀더 의연한 자세로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심으로써 국가적인 난국 타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대 평창군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군민의 성원과 참여속에서 완전 지방자치가 점차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만큼 더욱 감회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행부를 비롯한 동료의

원 상호간의 격의없는 대화와 협조로서
당면한 모든 문제를 무난히 해결해 왔습
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 동반자로서 5만 군민의 안
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신념하
에 알찬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더욱 노
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 드리는 바입
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안건
들이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원만하게 처리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개회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事係長 전완택 : 이상으로 제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時40分 閉式)